

회보 통권 제38호

언론인권



Center for Media Responsibility and Human Rights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www.presswatch.or.kr

2009 언론인권센터의 밤

제2차 임시총회



- 일시 : 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저녁 7시
(제2차 임시총회는 저녁 6시 부터)
- 장소 :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 '더클럽'

독자의 편지와 글을 기다립니다

희보「언론인권」을 읽고
노낀 점을 나누고 싶은 분!
글을 투고하고 싶은 분! 편지 띄워주세요.

• 원고 분량

- ▷ 독자의 편지 : 200자 원고지 1~2매
- ▷ 회원마당 / 그 외 원고 : 200자 원고지 7매

• 보내실 곳

- ▷ webmaster@presswatch.or.kr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105호 언론인권센터 (우)137-882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희보 언론인권 제36호 발행인 안병찬 편집인 최성주

• 우)137-88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105호 (사)언론인권센터 www.presswatch.or.kr

• 전화 02-591-2822, 02-591-0541~2 • 전송 02-591-0543 • webmaster@presswatch.or.kr © 언론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 04** **첨성대 거국주의(巨國主義) 대륙풍**
안병찬 |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 05** **이슈&이슈 기록에 대한 두려움**
신명식 |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이사
- 06** **사무처 25시 칸춤을 춘다**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 08** **사무처 25시 일신(日新)에 또 일신하다**
최성주 |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09** **사무처 25시 ‘윤 여사’ 남편으로 사는 법**
이왕재 | 회원 · 중소기업시대포럼 사무처장
- 10** **카라카스 문화기행 유머 넘치고 약자 배려하는 사회**
안태환 | 회원 ·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학술연구교수
- 12** **회원미담 나영이를 위한 애가(哀歌)**
김학웅 | 언론피해구조본부장 · B급 변호사
- 13** **블로거 세상 ‘트위터’ 의 재잘거림**
황의홍 | 정책위원 · 블로그문화연구소 ‘마실’ 소장
- 14** **시드니에서 온 편지 ‘강제투표제’ 로 바꾸자**
사은숙 | 회원 · 호주 시드니대학교 사회과학 박사과정
- 15** **회원미담 소개할 ‘자기’ 가 없어요**
최영아 | 회원 ·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16** **제25차 언론인권포럼 민주주의와 언론의 위기**
- 18** **[2009 청소년미디어인권캠프] ‘美人’ 들아 모여라**
김기수 | 역삼중학교 2학년
김예진 | 이화여자대학교병설 미디어고등학교 1학년
- 19** **언론폐해 119 상담일기**
- 20** **활동보고 · 회원동정 · 회비납부 · 신입회원**



표지 | 윤여진 사무처장
사진: 고명진 뉴시스 사진영상 국경

발행처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발행인 안병찬
 편집인 최성주
 편집주간 윤여진
 기획 김예린
 삽외·자료 송여진
 디자인 위례디자인
 발행일 2009년 10월 9일



안중근 의사의 중국 유적지를 답사하던 길에 유난히 눈에 들어온 것은 '다렌르바오(大連日報)'의 1면 머리 기사였다. 제목은 '신앙 : 한 사람 공산당원의 인종유혹'이다.

공산당 간부의 '신앙 유서'

기사는 다렌시 부비서장이던 차오렌신(曹連新)이 지난 6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서들 소개하면서 "한 공산당원의 생사관, 가치관, 가정관, 이익관을 감동적으로 표출했다"하고 고양하는 내용이다. 친필로 쓴 유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다. 나는 대자연의 한 분자에 불과하여 내 개인이 필연코 준수해야하는 죽음의 규율에서 도망할 수 없다. 스스로 자아평가를 하자면 첫째 당과 조국을 위한 사업에 평생 봉사하면서 가정과 처자에게는 미안하기 짝이 없다. 다만 인생 중 청청백백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이어 그는 당과 가족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나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되 시정부가 주관하여 당기를 덮어서 바다에 장사지내 줄 것을 청한다.

둘째 친속은 정부에 어떤 불합리한 요구도 하지 말고 나의 의견을 반드시 따르도록 당부한다.

중국은 그가 당과 국가에 충성하고 입부사업을 중하게 여기고 극기로 공사에 봉사한 좋은 당원, 좋은 간부, 좋은 공무원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요란한 50개항 '건국구호'

중국은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60주년'을 거창하게 경축하면서 '붉은 애국주의'를 치켜세웠다. 인적이 마오쩌둥(毛澤東) 등 신중국 건설의 주역이 실명으로 나오는 영화 '건국대업'은 표가 한 나절에 4500만장이나 팔려나갔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중국혁명의 원 자료라고 인컸는 '마오쩌둥 선집', '신민주주의론' 등 '홍색서(紅色書)'의 간행도 잇따른다. 중국공산당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공동명의로 발표한 '경축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60주년 구호(口號)'는 부러 50개 항목에 달하는 요란한 다진과 맹세로 치었다.



□ 다렌르바오 1면 머리기사 '신념을 가진 공산당 간부의 유서'를 대서특필했다. (친간사)

그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60주년을 연결히 경축한대로 시작하여, 우리나라 개혁 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위대한 승리를 연결히 환호 한대로 이어지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하여 덩샤오핑 이론화 사상을 굳건하게 실천 하자!면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자!고 외치고 있다.

중국 본색

'거국주의'는 중국 본색을 남아낸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제국주의와 미국 추종주의에 정나비가 떨어진 터이다. 바야흐로 중국도 정치 경제의



신명식 |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이사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인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십 수 년을 내달려 온 '친인인명사전'이 곧 세상에 나온다. 전 3권, 수록인물 4300 여명, 3000쪽에 달하는 규모만

으로도 해방 후 현대사연구에 큰 획을 긋는 저작물이다. 경술국치 100주년을 불과 1년 앞두고 있고, 해방직후 반민특위가 좌초한지 60년 만에, 또한 친인연구가 인종국 선생이 타계한지 만 20년이 되는 해에 대업이 일년락되는 것이다.

고스란히 남는다

친인문제연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내인신보다. 내인신보에는 그 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청년들을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내몰았던 사람들의 인행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100년 세월이 지나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록 앞에서는 어떤 변명이나 궤변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방 후 그들의 궤변은 멈추지 않았다.

이광수 李光洙(香山光洙, 1892~1950), 그는 인제의 정책에 찬동하는 글을 연성적으로 발표했으며, 조선 청년을 전쟁으로 내몰았다. "황민화가 될수록 조선 민족에게는 행복이 오는 것"이라며 "신체의 어느 부분을 바늘 끝으로 찔러도 일본의 피가 흐르는 일본인이 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변했다. 1948년 12월 이광수는 '나의 고백'을 통해 '민족의 식에 싹트던 때 부터 인제만기까지 자기의 행위는 "애국자로서의 명예를 희생하더라도 민족보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교육정책이었다"고 변명했다. 서정주(達成精誌, 1915~2000), 친인적 글쓰기에 가담한 행적을 반성하는 글을 남겼지만 문인으로서의

명성에 또 한 번 먹질을 했다. 그는 세간에서 자신을 '친인파(親日派) 또는 '부인파(附日派)로 부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만 일본의 '육인승천지세' 밑에서 '종천순인파(從天順日派)로 체념하면서 산 아간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인본은 이미 중국에 왕정위(王精衛)의 정권을 세우고, 동남아시아 전역을 치머어 들어가고 있어서, 이것이 두 해 뒤에 풀리어 해방이 되리라는 것은 나 같은 사람으로선 예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편파 언론' 역사의 창고에 쌓인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뼈저린 반성도 있다. 이항녕 李恒寧(延原光太郎, 1915~2008), 인제하에서 군수를 지냈다. 홍익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1980년 1월 26일 조선인보에 '나를 손가락질 해다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나는 인제 강점기에 그들(인본)에게 아부한 사람들이 잘 산았고, 그 자손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 지금까지도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1991년 7월에는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하여 "50년 전 하동군수로 재직 하면서 출세와 보신에 눈이 어두워 인제의 앞잡이가 되어 공출미를 탈취하고, 인제에 협력을 강요했다"며 "하동군민들에게 사죄한다"라고 연설했다.

요즘 언론은 자신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 또는 정파성에 따라서 편파보도나 왜곡보도를 서슴지 않는다. 이런 기록인지라도 하나하나 역사의 창고에 쌓이고, 훗날 현대사 연구에 유력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경외심, 기록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는 언론인의 필수덕목이다. 요즘 이런 언론인을 찾아보기 참으로 어렵다.



회보 『언론인권』은 언론인권센터 각 본부의 활동을 특별 기획으로 연재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이번 호는 하루 25시를 이리뛰고 저리뛰는 사무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청소년미디어인권캠프를 담은 동영상에 오늘 사무실에 도착했다. 멋지게 만든 동영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나타나 다시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다. 일본에서 온 세령이, 외몰이로 지내던 영수, 매사에 적극적이던 예진이 등 32명의 청소년들과 지낸 2박 3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진다.

너무나 예쁜 눈들이

사실 청소년캠프를 조직하는 일은 사무처로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러나 새로 합류한 미디어교육팀장님의 의욕과 너무나 예쁜 눈을 가진 어린 친구들과의 만남이 모든 어려움을 잊게 만들었다. 사무처의 시계는 주간통신을 발송하는 화요일 오전부터 시작하여 주간통신을 마감하는 월요일 밤까지를 한 주기로 삼아 돌아간다. 지난 1년여 사이

에 우리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 무엇보다 실감난다. 감각적이고 속도감이 나는 주간통신과 형식이 반듯하고 내용이 다양한 회보가 큰 역할을 했다.

“여기가 편집실인가요?”

“이시장님 우리가 어떻게 ‘시사인’ 같은 잡지를 만드나요?”

“윤 처장, 시민단체 회보는 대강 만들어도 되나요? 프로가 되겠다는 각오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있는 동안은 매사에 소홀하거나 안주하는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사무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처가 편집실은 아닙니다.”

이시장님과 호기롭게 치열하게 대화를 나누었지

반 내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의 활동을 프로답게 알린다는 것을 왜 자신 없어 하는 거지...'

이사장님의 자극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이사장님의 뜻을 잘 따라 가는 김예린 홍보팀장의 노고가 크다. 그녀는 지금도 월요일 밤, 아니 화요일 새벽의 기운까지 불어넣은 주간통신을 만드느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사무처의 삶이란

언론피해구조본부를 맡고 있는 송어진 간사가 상담전화를 받는다.

“재개발지역이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셨다구요. 집단소송을 생각하신다면 피해를 입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만 오면 “저희 처장님 바뀌드라겠습니까”하는 말만 되풀이하던 송 간사가 언론피해예방교육을 쫓아 다니고 상담사례집을 열심히 늘추더니 이제는 꽤 능숙해졌다.

우이동 자락에서 열린 회원워크숍에서의 일이다. 언론인권센터 위원들과 신입회원들이 늦은 밤까지 술잔을 나누며 눈독한 친분을 쌓고 있었다. 그런데 ‘언론인권교육10강’을 수료한 대학생 신입회원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다.

“미디어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잠깐 당황스러웠지만, 그 친구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무처의 하루는 정신없이 작동한다. 여러 종류의 회의(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미지별 실행위원회, 모니터회의, 운영위원회, 회보편집회의, 사무처회의 등)가 하루건너 열린다.

교육 사업은 확장되었다. 대안언론으로 성장하고 있는 1인미디어를 지원하는 사업도 사무처의 활동공간이 되었다.

그때그때 터지는 시국 문제, 언론 문제에 언론인권센터의 이름으로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모양을 보고 가끔 이사장님은 농담을 던진다. “윤 처장 또 칼춤 취요?”

시절이 바뀌었다.

본래 회사 홍보실에서 사보발간 일을 하다가 언론인권센터로 옮겨 미디어운동을 시작한 썬인데, 차츰 넓어져 가는 눈으로 언론인권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할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있다.

이제 시절이 바뀌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진실하고 전문적인 역할이 더 절실하다. 치우침 없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비록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뜻으로 민간 사람들이



□ (왼쪽부터) 최성주 상임이사, 윤여진 사무처장, 김혜린 홍보팀장, 송여진 간사

“**상**인이사님, 최근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가 많은데 우리 언론인권센터에서 과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이 뭔지 한번 짚어보는 게 어떨까요?” 사무처 회의 준비에 한참이던 윤 처장의 말이다.

일을 즐기는 사무처

내 머릿속은 이 대화를 더 이어갈지, 아니면 사무처장이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하던 일이나 마저 하도록 그만 정리해주어야 할지 복잡해진다. 그러나 다음 순간 우리 사무처 사람들의 대화는 진전되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인지 주고받은 끝에, 공영방송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리가 커지는 이 시점에서 올바른 공정성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이 잔뜩 밀려있으면서도 새로운 이슈를 찾아내고, 모두의 봄과 마음을 바쁘게 만들고, 그 스스로 일이 늘어나는 것을 겁내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있는 사무처장의 모습을 보니 그가 우리 언론인권센터와 처음 인연을 맺던 때가 떠오른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사회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던 그에게 한 두 단체를 후원하거나 자원 활동을 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전적으로 투신해보라고 권유했지만, 단지 제안을

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내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이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 그는 편안한 직장을 떠나 아무런 보장이 없는 언론인권센터 활동가로서의 삶을 용감하게 선택했다.

용감한 개구리의 올챙이적

그는 봉급 3분의 1 이상의 삭감을 감수하며 이 일에 전적으로 뛰어 들었다. 하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가로 거듭나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하루하루를 지켜보기가 불안한 적도 있었다. 그러던 그가 이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처의 신입 활동가들을 격려하면서 이끌어주는 자리에 섰다. “개구리 올챙이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놀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제 그와 함께 일신우일신하는 사무처를 꿈꾸고 있다.

언론피해구조 위주의 사업에서 ‘시민을 위한 언론인권 10강’, ‘언론인 윤리교육’, ‘청소년 미디어 교육’, ‘네티즌을 위한 온라인 교육’ 등 새로운 언론인권 교육 사업과 1인 미디어 지원 활동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지만 뉴미디어시대에 걸맞은 언론인권센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늘 새롭게 밀려온다.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단체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역량을 키워가는 뜻을 그와 나눌 수 있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

'윤 여사' 남편으로 사는 법

이원재 | 회원 · 중소기업시대포럼 사무처장



아 내 윤여진은 결혼하기 전부터 '윤 여사'로 불렸다. 아마 늘 당당하고 강단 있는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결혼한 후 인

론인권센터 사무처장으로서의 아내는 더욱 '여사'스러워 졌다. 나는 가정의 평화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여사'의 남편으로 사는 법을 익혀야 했다.

'여사'의 남편은 상대를 제압하려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감동의 씨앗이다. 동시에 제압당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나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아침

아침밥은 언감생심. 나에게 아침을 차리라고 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는 심정으로 아침을 맞는다. 나의 임무는 휴대폰 챙기러 한 번, 가방 챙기러 또 한 번, 화장품 챙기러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자꾸만 들락날락거리며 바쁜 출근 시간을 허비하는 아내를 빨리 집밖으로 몰아내는 일이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항상 아내 뒤편에 서서 북북히 '소몰이'를 한다.

점심

오전에 한 통의 전화도 없다면 그것은 아내가 무척 바쁘다는 뜻이다. 반대로 한 통의 전화도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바쁘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점심 식사 후에는 꼭 전화를 해야 한다. 점심시간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북소리를 듣고 달려주는 '문안 인사'의 시간이다.

오후

아내의 큰 관심은 나의 봄매이다. 많이 먹지 말라고 노래 부르는 '윤 여사'에게 나의 점심과 간식 식단을 점검하는 일은 중요한 일과이다. 오후 느지막하게 어김없이 아내는 물어온다. 이때 당황해서는 안 된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이다. 나는 아내에게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먼저 묻는다. 카레라이스를 반반 먹었다고 답한다. 점심 먹기 전에는 무엇을 먹었는지 또 물어본다. 그러면 호도 파이 반쪽이라는 답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라고 또 캐물으면 "단팥빵 하나"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이쯤하면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아내는 묻지 못하게 된다.

저녁

퇴근이 늦는 아내와 나는 밤 10시나 11시에 평화문에서 만나 함께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절반정도다.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쪽이 먼저 퇴근한 쪽에 전화를 걸어 하루 일과를 정리한다. 언론인권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집안 대소사를 놓고 의견을 나눈다. 나는 주로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상호 일치하는 이 시간은 내야 한다.

자정

약속을 어기고 자정을 넘겨 집에 들어가야 할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떡볶이와 순대'를 추궁할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날이면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



유머 넘치고 약자 배려하는 사회

안태환 | 회원 ·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학술연구교수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여행하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산꼭대기 빈민가로 오가는 케이블카였다. 지하철역과 단동네 사이의 수없이 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네트로 까블레 (지하철 케이블카)라고 했다. 케이블카는 오직 관광용이란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한편 카라카스에는 서울 강남구 같은 치카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층건물과 호사스런 호텔, 인부 식당들이 즐비하고 식당은 자본주의적 쾌락을 마냥 즐기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유머담긴 반미 독설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기끔씩 심한 반미주의적 독설을 쏟아내지만 그렇다고 베네수엘라의 사회문

화 분위기는 정직된 사회주의 사회와는 다르다. 차베스는 유머를 담아 전략적인 언술을 구사하고 있다. 유머가 있는 대중 담론은 라틴 아메리카 일 반대층의 무의식적 정서와 맞아서 설득력을 발휘한다.

일각에서는 설득력이 강한 언변과 카리스마로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차베스를 가리켜 포퓰리즘 정치가라고 부른다.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는 유머와 아주 강한 친화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영화, 소설, 시 등은 사회의식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정직된 형식의 표현이 아니고 애매보호함과 유머로 표현한다. 그 철학은 권위적, 일방통행적인 기득권 문화를 풍자하여 웃음을 통한 전복의 비하를 보여준다.

원래 라틴 아메리카는 일반적으로 소비성향이 높기로 유명한데 베네수엘라는 더 높기로 유명하다. 저소득층 대중이 잘 가는 상업 건물로 가면 어디 서나 흔하게 눈에 띄는 것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와 빵집인데 사람들이 크게 붐빈다. 가게 앞의 작은 광장에서는 젊은이들이 힙합 춤 경연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가격이 저렴한 현지 음식을 한 가지 소개하자면 옥수수도 반은 떡 속에 치즈를 끼워 넣어 만드는 아레빠이다. 이것을 맥주 또는 과야바, 과나바나 같은 열대 생과일 주스와 먹는 맛은 일품이다.

필자가 만나 같이 식사하던 대학교수는 베네수엘라는 왕년에 전 세계에서



□ 카리카드 중심가의 맥도날드

일인당 위스키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계속해서 위스키를 시켰다. 인구 600만의 카라카스시에는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다. 석유가 나는 나라로 휘발유 값이 아주 저렴하여 누구나 차를 끌고 나오니 저녁 러쉬아워에는 길이 꽉꽉 막힌다.

카라카스 대폭동의 기억

예전에 차베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1989년, 당시 페레스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정책을 통해 휘발유 값을 인상하고 버스 값을 대폭 인상하자 가난한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상점으로 난입

해 유리창을 깨고 식료품을 마구 약탈해 카라카스 대폭동(카라카소 : Caracazo)으로 번진 적이 있다. 이 사회적 항의의 대폭동은 베네수엘라에서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우파의 보수양당체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빚었다.

가난하다고 마구잡이로 식품을 약탈한다

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대빛 세돈과 존 윌튼 같은 학자들은 이를 '윤리적 경제의 배신'으로 설명한다. 대가족은 베풀 것이 없는데도 가부장 혼자서 노름과 유흥으로 돈을 탕진하면 식구와 친척이 매우 분노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국과 기독교층은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온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삶의 방식에 젖어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삶의 방식에 쉽게 동화하는 문화적 집단 무의식 같은 것이 있다고 본다.




□ 달동네 오르내리는 메트로 케이블레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 중산층 이상의 기독교세력에게 마치 말겨둔 것을 내놓으라고 하듯 당당하게 '사회적 요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지형을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쪽으로 변하게 하는 눈에 잘 안 보이는 문화적 동력인지 모른다. 우리 사회의 유명한 정치학자들도 시민의 사회적 요구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는 이정표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파편화한 개인의 생존 욕망만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가난한 자의 국영 식품점

베네수엘라는 빈민들을 위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다양한 '미시온'(임무라는 뜻의 스페인어)을 채택하고 있다. 필자는 그중 하나로 메르칼 미시온을 소개하고 싶다. 차베스 정부는 메르칼이라는 국영 식품점을 열어 양질의 식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나 갈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많아 줄을 한참 서야 한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친구가 구입한 분유를 담은 비닐포장위에 무엇인가 작은 글씨들이 적혀있다. 자세히 보니 대중들이 보고 배우게 1999년에 제정한 신헌법의 조항을 인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적성과 소질, 희망사항으로 인한 제약 외에는 모든 것이 동등한 조건과 상황에서 전인적이고 항상적인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제 103조였다. 



여덟 살, 건드리기만 해도 깨어지고 부서져버릴 것 같은 나이. 나영이. 가족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 뿐인 딸. 그럼에도 그 소녀를 해친 인두갑을 쓴 잠승에게 선고된 형은 고작 징역 12년. 이것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내려진 판결인가.

판결 향방을 향한 '절망' 이다

어분이 늘꿨은 것은 인두갑을 쓴 잠승에게 너무나 가벼운 형량을 적용했다는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판결 기준은 인두갑을 쓴 잠승이 술 먹은 상황에서 범한 죄과이므로 '술 먹은 범죄자를 벌하는' 최고형량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국의 사법부는 놀라우리만치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다. 특히 그 성범죄가 근친이나 친족을 상대로 벌어지는 경우, 장애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경우에 턱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적지 않다.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의 범인)은 어떠한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혼미하지 않았다면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판사가 대체 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선택했는지, 보는 사람이 의아해서 공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판결은 진정 공정했는가

사법부의 누군가는 이야기할지 모른다. 범죄자에게도 술 먹을 자유와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후** 재판부가 위와 같은 생각으로 그런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기를 이 B급 변호사는 믿고 있다. 범죄자의 그런 자유와 인권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이며, 범죄자는 그의 죄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다. 그녀하기에 구미의 프라이버시 중주국들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중형을 선고함은 물론 그 신상을 공개하고 화학치료로 거세하는 강경한 처벌을 하고 있다. 관용(불레랑스)의 보국 프랑스는 2차 대전 종전 후 나치 부역자뿐만 아니라 나치 치하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까지 척결했다.

공소시효를 연장하라

물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치료와 보호이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했다고 범죄자를 불기소하거나 범죄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또 거세형의 도입 역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어린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범죄자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이에 공소시효가 흘러 범죄자가 백주대모를 할 보호하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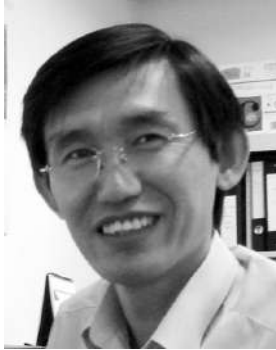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인권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이 말을 전해하고자 한다.

“인면수심의 성폭행을 자행하는 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다. 밤에 짧은 스커트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잠승의 성욕을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하게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가엾은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연쇄살인범의 잔혹한 행동에 분노하는 대중 앞에서 “너희가 프라이버시 권을 아느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나쁜 것”이라고 읊조리는 건 정말이지 폭력적으로 한 가깝게 들린다고.



‘트위터’의 재잘거림

황의홍 | 정책위원 · 블로그문화연구소 ‘마살’ 소장



기의 한 변이다.

특징은 ‘빨리 빨리’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장소를 마련하고 행사진행에 앞장서서 인터넷방송, 현수막, 음료 등을 준비했다. 기업은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줄 상품을 협찬하여 선물거리가 넘쳐났다.

SNS토론회는 행사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았는데 몇 개월을 준비해서 개최하는 대형컨퍼런스와 유사한 규모로 커졌다. 트위터의 빠른 전파력과 협업의 힘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트위터는 무엇보다 우리의 문화적 특징과 맞아 떨어진다. ‘빨리 빨리’와 ‘솔림’이라는 특징들을 트위터는 제대로 구현한다. 정운찬 씨를 신임총리로 내정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은 당일 오후 3시였다. 그런데 트위터에는 이미 오전 11시경부터 그가 임명된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최근 트위터는 엠바고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는 그가 동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사진과 함께

빠르게 전파되었다. 지난 7월 비디언법이 쟁점이 되었을 때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준 것도 트위터였다.

‘날 것’ 확산하는 그것

트위터에는 회사 사무실이나 동네 사랑방에서 편하게 나눈 이야기들이 정제되지 않고 ‘날 것’으로 오른다. 그 ‘날 것’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내용을 확대 재생산 한다. 정치인 중에서 트위터를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트위터에서 국민과 직접대화를 할 수 있어서 민심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트위터의 재잘거림은 기존의 소통방식을 완전히 바꾸며 ‘디지털직접민주주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트위터와 연결된 서비스는 1,000개가 넘는다. 트위터를 통해서 곧바로 여론소식을 할 수 있고, 서명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다. 지금 트위터를 비롯하여 각종 1인미디어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디어파워를 생성하고 기성언론과 협업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기성언론이 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지 지켜 볼 일이다. 

<http://twitter.com/massil77>



'강제투표제'로 바꾸자

사은숙 | 회원 · 호주 시드니대학교 사회과학박사과정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한국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투표를 의무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호주는 선거 상 강제투표제(Compulsory

vot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불참하면 누진제로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 이 아니라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 하는 제도이다.

호주의 강제투표제

호주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느 나라보다 먼저 도입한 강제투표제는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보통 유권자가 95%나 참여하는 선거이고 보니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 없는 편이다.

강제투표제는 호주가 최초로 도입했고 세계 32개국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호주는 한국보다 복지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호주는 세금을 많이 거둬서 사회적 약자에 좀 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복지 사회의 바탕은 기득권층과 경제적 강자 등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의 50%에 이르는 점이다.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너무 낮은 한국 투표율


한국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지만 선거참여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과 개인주의 등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저 투표 참여율 63%를 기록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참여율이 46%였다. 기타 지방 의회 및 자치단체 선거는 5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지난 8월 제주도에서 실시한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은 11%. 왜 비싼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 선거를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저조한 투표참여율로는 진정

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가 어렵다.



국민들은 “나 하나쯤 투표 안한다고 뭐 크게 달라 지겠어?”하는 안이한 사고에서 벗어나야한다. 내 한 표가 나 자신과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최영아 | 회원 ·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오랜만에 대학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즘 어때?”하고 인사를 던졌습니다. 멋쩍게 웃는 걸 보니 괜한 걸 물었나 싶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은

이것저것 고민이 많은 시기여서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가볍게 안부를 묻기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졸업하고 절혼한 친구도 있고 일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능력을 인정받는 게 꿈이었던 친구가 졸업하자마자 절혼해서 아기 낳고 잘 사는 걸 보면 참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 “그래, 남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없는 길이라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선뜻 나섰다가는 낭떠러지나 막다른 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무슨 길을 가고 싶은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물음에 대답을 해 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지만 오늘도 대답을 듣지는 못합니다.

매일 각종 취업 사이트에서는 수많은 회사들이 구비가 당기는 연봉과 대우로 나를 유혹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기계적으로 짚어 내면서 내 학창시절을 돌아보니 공부를 죽어라 한 것도 아니고, 보란 듯이 논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 학생이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만큼은 잠시 애사심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짜내고 짜내서 언론인권센터 자기소개서 한 장을 채우고 나면 뿌듯하다기보다 뭔가 마음이 허전합니다. 써놓은 글을 보고 있자면 너무 비장하고 간절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비장한 자기소개서

내가 지금 누구소개를 누구한테 쓰는 건가하는 생각으로 멍해질 때쯤 지난 회원 워크숍이 끝나고 술 한 잔을 나눌 적에 윤여진처장님이 해주신 말이 떠오릅니다.

“너무 고민이 될 때는 살짝 벗어나 크게 보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일과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은 의외로 많단다. 그리고 그 뜻을 함께 할 사람들은 만나기 마련이거든.”

지금 생각해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척만 했지, 진짜 오롯이 나 스스로에게 집중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눈치 보고 살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요즘 자기소개를 한답시고 없는 자기도 끌어다 쓰고, 남의 자기도 끌어다 쓰는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렇지만 찬란한 25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진짜 내 자기를 찾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뻐뻐합니다. 조반간 사랑스런 나의 자기와 함께 서초동 언론인권센터를 찾아가겠습니다. 

‘美人’들이 모여라



인론인권센터는 8월 9일부터 서울 우이동의 '봉도수련원'에서 최초로 2박 3일의 '청소년미디어인권캠프-미인들이 모여라'를 진행했습니다.

인론인권센터는 김현욱 미디어교육 탐장을 중심으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난 6월 산레시오 수녀회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수녀님을 대상으로 두 차례 미디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난생 처음 미디어인권캠프에 참가한 청소년 학생들은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둘째 날 영상 제작 시간에는 끼니도 거르며 연성을 다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2박 3일 동안 힘든 것 꺾 참고 지원해주었습니다.

[강사진]

- '미디어와 나' _ 이현정 | 경실련 미디어워치 교육강사
- '미디어 속 고정관념' _ 박행우 | 경실련 미디어워치 회장
- '미디어와 소비' _ 구현정 | 기톨릭미디어교육공동체 대표
- '저작권' _ 김현욱 | 인론인권센터 미디어교육팀장
- '미디어와 인권' _ 최성주 | 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게임문화' _ 강미화 |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연구위원
- '미디어와 인권 UCC(순수제작물) 제작' _ 신동진 | 다큐멘터리 감독
- _ 심설희 | 방송정보국제교육원 전임교사
-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_ 박수경 | 현암고등학교 교사
- '미디어와 개인정보보호' _ 옥성일 | 용산고등학교 교사





난생 처음 만든 뉴스였어요

김기수 | 역삼중학교 2학년

나는 친구의 조인으로 이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까지 가본 어떤 수련회보다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제인 인상 깊었던 사진은 둘째 날에 실제로 해본 '뉴스 만들기'였습니다.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냈다는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제를 정하고 자료조사를 다 해야 했기에 화합이 중요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서로의 우정이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영상자료가 많은 것도 좋은 점이었습니다. 특히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이 소독입니다. 수업시간에 본 영화 '아이스에이지'의 다람

쥐 이야기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나도 예전에 케인을 죽도복 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 좋은 것을 찾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다람쥐처럼 연신히 그 일만 좇았습니다. 인산 MBC 드림센터에 가서 '개그야' 들본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학원 잔인이나 다른 급한 일이 없다면 이런 캠프에 또 참가하고 싶습니다.



우린 저작권자니까

김예진 | 이화여자대학교병설 미디어고등학교 1학년



미디어캠프 가보지 않을래?
캠프라고 놀 생각만 하고 가면 안 돼. 일정이 빡빡해서 정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아는 몇몇 아이들과 어렵게 찾아간 봉도청소년수련원. 도착하자마자 모두들 '아름다운 미디어들 꿈꾸는 사람들' 이라고 씌어진 검은색 티를 입고 간단하게 서로 나이와 얼굴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8명씩 4조를 짰는데, 이럴 수가! 고등학생인 나를 조장이라고 했습니다.

곧 시작한 미디어 교육, 곳곳이 앉아서 강의만 들을 줄 알았는데, 영상과 파워포인트를 보고, 그림도 그리고, 퀴즈도 맞추고, 직접 발표도 하고……, 생각보

다 꽤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조금 지루한 강의도 있었지만, 살짝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던 교육 및 가치를 만해보자면, 미디어가 끼치는 영향, 저작권, 악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충 안고 있던 것도 있었지만, 더 자세히, 더 충격적으로, 더 재밌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인산 MBC 드림센터 견학! 체험 활동장, 개그야 리허설, 드라마 '선덕여왕' 과 '밤쥐 세트장' 등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방송관련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더 굳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엔 배운 것들로 장난도 쳤습니다. "너희가 만든 동영상 모두에게 다 보내줄까? 너희 조뿐 아니라 다……." "안돼요!!! 그건 저작권 위반!!! 우린 저작권자니까!"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가 훼손 되었습니다

문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상사 A씨와 직원 B씨 사이에 말다툼과 가벼운 폭행이 오고 갔습니다. 사내 감사실에서 이 다툼의 진상을 가리고 당사자들은 화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뉴시스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제목과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로 B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항변하여 일은 진보다 더 키웠습니다. 또한 보도 내용은 이 다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 노조의 명칭까지 기본적인 악의성 짙은 것이어서 노조의 명예까지 실추시켰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A씨는 물론 다른 직원들에게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담당 기자는 다음날 연락을 주기로 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답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내 감사실의 진상조사서나 기사가 접촉했다는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기사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무관한 노조에 관한 기사 내용이 고의적으로 노조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폄하하려는 의도를 품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방송은 삭제되었는데 인터넷에서는 검색이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우리 단체가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데, 지역 방송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자료 영상은 이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사업장의 모습이라 단체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방송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뉴스를 방영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포털에서는 뉴스를 여전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털사에 상황을 알리고 더 이상 기사가 확산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작업 중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 포털을 통해 유포된 내용에 대해 방송사와 포털측에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털은 피해자에게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는 경우에만 그것을 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개정된 언론피해중재법에 따라 포털의 기사유통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위기

서울 우이동 한미장에서 열린 언론인권센터 회원워크숍(8월 21일-22일), 열띠고 오붓한 모임 가운데 21일 저녁 제25차 언론인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위기'입니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다른 대학생 모임의 젊은 열기를 느끼며 산장의 토론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위축된 민주주의와 언론의 현 상황을 비리보았으며, 회원들 각지는 마음에 문제의식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발제] 최경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정책위원

언론의 세 가지 역할

현대정보사회에서 언론이 갖는 첫 번째 역할은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소통은 국민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공유하고 주고받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 언론의 역할은 권력의 핵심인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책무입니다. 정부권력과 적절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정치 활동과 그 행위를 관찰하여 비판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의 세 번째 역할은 여론형성입니다. 세상의 만길(万路)이 되어 국민들에게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사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수 있게 하고, 민주적 행위를 판단하는데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왼쪽부터) 김진웅 교수, 김학웅 변호사, 최경진 교수, 정인숙 교수

자본주의 모순의 유혹

경쟁의 자유방임을 근거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논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는 언론에게 사회의 공익적, 공공적 역할을 하는 공기(公器)가 아닌 그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기업이 자본에 이끌려 사회적 비리나 파행을 일으켜도 부관심과 모르쇠로 인관했던 과거의 보도형태를 묵인하고 이제는 그것을 자신들 정당의 집권연장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연대가 필요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디어 비평운동, 미디어 교육도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토론 1] 김학웅 변호사·언론피해구조본부장 “김민선 사실확인 의무 없다”

배우 김민선씨의 광우병 발인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고기 수입업자가 그녀의 발인을 건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일반시민이 한 발인은 그가 '취재권' 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 확인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언론은 사실 확인과 공정한 논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발인은 의견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감정적 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학이나 풍자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금의 사회집권세력의 속 좁음이 안타깝습니다.

[토론 2] 정인숙 경원대 신빙과 교수·지문위원 “자본시장 논리의 틀로 풀어야”

이번 미디어법의 핵심은 신문과 방송의 검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검열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일한 지역에서는 신문방송의 검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론의 독과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의 영역이 점점 자본력에 종속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미디어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발적 사회안전망을 시민단체나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 3] 김진웅 선문대 신빙과 교수·정책위원장 “토끼몰이 정치의 함정”

지금의 정치는 60~70년대의 '토끼몰이식' 사교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쪽은 다른 한 쪽을 극한으로 내뽐니다. 민주주의 토론방식은 부조건 '너를 비판한다' 가 아니지요, 상대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는 것이지요, 방송문화진흥회에 신인 이사장이 부인하면서 지역 MBC를 매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민방의



영향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거세게 반대하지 못합니다. 지역 방송은 위기입니다. 위기는 일단 깨져야만 갱생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재미있고 화려한 방송 프로그램에 홀딱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KBS, SBS 등과 소통하며 “내 의견이 어떻게 하면 방송에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합니다.



■ 언론인권센터 활동일지

- 8월 4일 회보 『언론인권 통권 제37호 발송』
- 8월 9일~11일 [청소년미디어교육] '청소년미디어인권캠프-미인 돌아 모여라'
- 8월 18일 [미·지·별] 제15차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 8월 21일 [제25차 언론인권포럼] '민주주의와 언론의 위기' 회원워크숍
- 8월 21일~22일 [사무처] 편집디자인 오리엔테이션
- 8월 25일 [모니터팀] 제4차 언론인권 모니터 회의
- 8월 26일 [미·지·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의 최병성 목사 행정소송 지원
- 8월 31일
- 9월 2일 [모니터팀] 제5차 언론인권 모니터 회의
- 9월 8일 [미·지·별] 제16차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 9월 8일 [실행위원회] 제8차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 9월 9일 [모니터팀] 제6차 언론인권 모니터 회의
- 9월 14일 [운영위원회] 제43차 운영위원회
- 9월 16일 [모니터팀] 제7차 언론인권 모니터 회의
- 9월 24일 [제26차 언론인권포럼] '사찰지불민처리제도 어떻게 바꿀까?'
- 9월 28일 [이사회] 제42차 이사회

■ 대외협력 일지

- 8월 27일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가짜회간-방송의 공영성 외면하는 KBS' 각성하라
- 9월 6일 [미디어행동] '언론자유를 탐하는 탐스러운 사람들의 탐'
- 9월 30일 나는 물품 바자회(언론자유 탐탐탐 바자회) 개최
- [미디어행동] '미디어악법' 원천 무효 1000만 서명운동

■ 제4차~제8차 '언론인권모니터 회의'



□ 훌륭한 모니터 보고서가 탄생하는 그 날까지... (왼쪽부터) 배진영·강창원·최영아·민지영·정선경 지원활동가.

모니터 요원들은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신문사와 방송사가 '박연차 게이트'를 보도한 내용을 모니터한 후 모니터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모니터 보고서의 틀을 정했습니다.

■ 미·지·별 행정소송

최병성 목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특위 '피해구조' 지원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 운영자 최병성 목사(<http://blog.daum.net/cbs5012/>)는 지난 8월 31일 장주영 변호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상담변호인)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회원동정

- **박금자** 회원(문학박사)을 언론인권센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 **김영호** 명예이사(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8월 26일 KBS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 **박정삼** 이사님 아들 박재홍 군의 결혼식이 9월 13일 호텔 리즈칸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자문위원(평화를 위해 인하는 사람들의 그물망 '이배진 피스' 대표)은 9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 **임영신** '공정여행, 새로운 여행의 지도를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2009 여행인문학 강좌 13강'을 개최합니다.

뚝다! 9인의 법률해결사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피해상담소



(사진 왼쪽) 김학웅 변호사, 한국언론피해상담소장, 법무법인 창조, 안영도 변호사, 필동합동법률사무소, 이오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이웃줄) 장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김종천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 김영태 변호사, 김영태법률사무소, 한명욱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남북, 옥중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평, 원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자하연

언론보도 피해구조: 민·형사소송 지원, 무료 법률상담

언론인권센터 부설 한국언론피해상담소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초상권·성명권·저작권 침해 등 언론에 의한 인격권 전반의 침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민·형사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 구조활동을 합니다. 문의: 02-591-2822



회비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일반회비

강기화 강병선 강세진 강신하 강경의 김귀자 김수경 김숙희 김승기 김영천 김영태 김영필 김용진 김 옥 김윤의 김원강 김장태 김성환 김중천 김차미 김차아 김산웅 김진희 김진희 김원인 김원욱 김원희 김홍식 김희진 권영준 권순호 나강수 남성우 노만수 노성렬 류안호 분복선 분병호 분선순 박건식 박근자 박광근 박복환 박상하 박용훈 박은성 박은주 박원순 박재권 박진순 박행우 배동인 배영철 백성식 천성근 성안숙 소성민 손경순 손승원 송강재 송강화 송세진 안상운 안영도 안진순 양해과 임진섭 오미영 오영희 오성민 오정균 윤석민 이강택 이광규 이기원 이근행 이상봉 이선민 이수이순흥 이승미 이인하 이오영 이예원 이자분 임수강 임정근 임채균 임현우 상병화 상은숙 상주영 상영희 상지호 선우원 정광원 정영주 정안숙 정준성 정희인 조영보 조성하 주신강 주현주 차예린 최상주 최용호 최은주 최진영 한기호 한명욱 한영진 한중호 한학수 허승철 허운무 홍원기 홍승표 황원인 범무법인 대신 아시아기자협회

일반후원금 안영도 상주영

[2009년 8월]

일반회비

강기화 강병선 강세진 강신하 강경의 김귀자 김수경 김숙희 김승기 김영천 김영태 김영필 김용진 김 옥 김윤의 김원강 김장태 김중천 김차미 김차아 김산웅 김진희 김태우 김원인 김원욱 김원희 김희진 권영준 권순호 남성우 노만수 노성렬 류안호 분복선 분병호 분선순 박건식 박근자 박광근 박복환 박상하 박용훈 박은성 박은주 박원순 박재권 박진순 박행우 배동인 배영철 백성식 천성근 성안숙 소성민 손경순 손승원 송강재 송강화 송세진 안상운 안영도 안진순 양해과 임진섭 오미영 오영희 오성민 오정균 윤석민 이강택 이기원 이근행 이상봉 이선민 이수이순흥 이승미 이인하 이오영 이예원 이자분 임수강 임채균 임현우 상병화 상은숙 상원주 상주영 상지호 선우원 정광원 정영주 정안숙 정희인 손승원 조영보 조성하 주신강 주현주 차예린 최상주 최용호 최은주 최진영 최규성 한기호 한명욱 한영진 한중호 한학수 허승철 허운무 홍원기 홍승표 황원영 범무법인 대신 아시아기자협회

일반후원금 강기화 공태경 노연성 김 찬 박경진 박행우 송세진 신미선 윤이선 상은아 정상운 정안숙 최경진

우리 경제의 푸른 내일을 준비합니다

외국에서도 모두가 서비스 산업을 이끄는 경제의 최성장 동력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세븐의 카지노

세계 최대 관광 관광진흥업 수상기업 2012년
유니콘, 2012년 10월 10일 기준 100억 원 이상 기업 1위
2011 세계적인 경쟁력 서비스로 제1위에서 4위를 달성한 기업으로
세계적인 최고 관광 서비스기업이 되었습니다



3년 연속 관광진흥업 수상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외국의 관광 세븐의 카지노

3억불의
수출효과



수출액 1억5000만



회원 200만



업종 1위

Seven  Luck
CASINO